

부르면 오는 '나주콜버스' 9월부터 빛가람동에서 본격 시동

대중교통 노선 개편 정책 첫 결실 ... 8월 31일 개통식 행사 앱 또는 콜센터 호출 후 원하는 승강장까지 최단 거리 운행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내 버스 승강장 어디서나 승객이 부르면 오는 '나주콜버스'가 9월부터 본격 시동을 건다. 나주시는 내달 1일부터 빛가람동 관내에서만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인 나주콜버스를 6개월간 시범 운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나주콜버스는 대중교통 보조금을 줄이고

서비스는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둔 민선 8기 대중교통 노선 개편 정책 중 하나로 새롭게 도입됐다. 콜버스 개념의 대중교통은 전라남도 지자체 중 최초다. 이 버스는 정해진 노선과 운행시간표 없이 앱(App) 또는 콜센터를 통해 승객이 호출하면 원하는 목적지(승강장)까지 최단 거리로



운행한다. 이용 방법은 앱(나주콜버스 또는 바로

운행 시간은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으로 오후 10시까지 호출을 받는다.

DRT)과 콜센터(1533-5015)에서 버스를 호출하면 빛가람동 내 버스승강장 71개소에서 승·하차 할 수 있다. 버스는 15인승(총 5대)이며 요금은 기존 버스와 동일한 일반 1000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을 내면 된다. 하차 단말기를 기준해 동일 노선을 제외하고 2회 환승이 가능하다.

단, 승객이 호출을 했다가 1시간 내 3회 호출 취소(노쇼 포함) 시 1시간 동안 호출이 제한되는 페널티가 적용된다. 나주시는 본격적인 버스 운행에 앞서 8월 31일 오전 10시 빛가람동대 주차장에서 버스 개통식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빛가람동 나주콜버스는 정해진 버스 시간이 아닌 승객이 원하는 시간에 목적지까지 최대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혁신도시 여건에 딱 맞는 혁신적인 대중교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송준표 기자

화순군, 고인돌 오토캠핑장 캠핑 성지로 주목

41면의 강자갈 사이트·족구장·샤워실·취사장·화장실 등 편의시설 조성



화순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화순 고인돌 유적지 인근의 고인돌 오토캠핑장이 합리적인 이용료와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 청정

자연의 향기가 가득한 캠핑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화순군에 따르면 2022년 개장한 화순

고인돌 오토캠핑장은 41면의 강자갈 사이트, 족구장, 샤워실, 취사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도곡농협 로컬푸드가 가까이 자리 잡고 있어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이용요금은 비수기 평일(일~목), 공휴일 2만원, 비수기 주말(금~토 및 공휴일 전날), 성수기(7~8월) 2만 5,000원이다.

또한, 각종 유·무료의 선사 체험이 운영되고 있는 선사 체험장과 모아이 석상 등 세계 거석을 전시해 놓은 세계 거석 테마파크가 주변에 있어 캠핑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고인돌 유적지 일대를 둘러보며 관람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고인돌 오토캠핑장은 답답한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이 자연을 즐기고 소중한 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지를 관람하며 편히 쉬고 갈 수 있도록 야영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화순군은 2023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를 10월 20일부터 10월 29일까지 10일간 세계문화유산 화순 고인돌 유적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구례군 드림스타트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캠프'

구례군 드림스타트는 8월 16일부터 2박 3일간 강원도 하이힐링원에서 드림스타트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게임, 인터넷 등 행위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유를 위해 강원랜드 중독관리센터(KLACC)에 주관하는 이번 캠프에 구례군 드림스타트가 공모해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은 산림을 통한 자연치유 프로그램, 도전 중독타파, 디톡스 챌린지, 힐링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을 통해 스마트폰에 대한 통제력과 자기 관리 능력을 향상시켰다.

군 관계자는 "이번 캠프가 아동들이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을 터득하고, 자연과 함께 우정을 키우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 드림스타트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사례 관리, 복지, 건강, 상담 및 부모 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례=박진호 기자

담양군, 주민과 함께하는 '대전다움'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담양군은 지난 17일 수료생 16명과 함께 주민과 함께하는 '대전다움' 도시재생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재생대학은 주민들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마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됐다. '대전다움' 도시재생대학은 대전면 활성화 계획(안) 살펴보기, 대전시장 사업지 탐방, 도시재생사업 특강, 단위사업계획 조정 및 의견 나누기 등 총 8회에 걸쳐 다양한 교육내용으로 채워졌다.

이날 수료식과 함께 이규현 도의원의 '대치 리 이야기'와 광주대학교 김항집 교수의 '도시재생의 개요와 정책 변화' 특강도 함께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적극 참여한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곡성군민의 평생 건강을 위한 첫 걸음 '영양플러스'

임신부·출산수유부 및 만6세 미만 영유아에게 보충식품 패키지 배달

곡성군은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만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매월 2회씩 50여 가구 60여 명에게 영양보충식품 패키지를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목표는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의 위험에 노출된 임신부 및 영유아의 영양 문제 해

소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사업 대상자 소득기준)미만 가구 중 빈혈 등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6세 미만 영유아이다.

대상자 선정은 지원서와 소득증명서류를 군

에 제출하면 사업 담당 영양사가 대상자를 분류하고, 대상자의 거주기준 및 소득을 1차적으로 확인한다.

최종적으로 영양상태평가(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측정, 식품섭취상황조사)후 영양적으로 위험 요인이 있을 경우 대상자로 확정하게 된다. 확정된 대상자에게는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보충식품패키지(조제분유, 감자, 달걀, 우유, 밀치, 등)를 각 가정에 직접 배달하게 되며,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 촉진 을 지원하는 교육과 상담도 실시 한다.

곡성=양혜영 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관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